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사건 단독보도와 4개월간의 추적

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모-어린이집 원인공방

김포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단… 아이 이모측 "즉시해고 탓"

어린이집은 "진화 위해 해고한 척… 전날까지 서로 격려" 반박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김포시 통진읍소재 어린이집 여교사 A(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10월 14일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교사의 죽음을 놓고 아이 이모들과 어린이집 간 원인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김포지역 맘카페에 교사 성토글을 올린 아이의 이모 B씨는 어린이집 측의 과잉대응 때문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난 15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아이를 밀쳤고, 내 조카는 아동학대 당한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처음부터 교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즉시 해고했다"며 "나는 교사가 잘못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했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가 아님에도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한 데 대해서는 "평소 엄마를 대신해 아이를 자주 등원시켜주던 막내 여동생에게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어린이집 측에서 새벽 일찍 전화를 해댔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느껴져 화가 나 찾아간 것"이라며 "교사에게 몸을 끼얹었다는 것도 교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내 신체를 강하게 접촉해 순간 놀라 물컵이 앞으로 나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끼얹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막내 여동생 C씨도 "일이 벌어진 날 어린이집에서 나를 불러 찾아갔을 때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상황설명은 짧게 하고 오로지 어린이집이 타격을 입을 것만 우려했다"며 B씨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같은 주장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교사를 해고처리 하지도 않았고, 해고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실명까지 유출된 … 가려질 때까지 쉬 … 거센 항의를 진화 … 던 것"이라고 분 … 사는 "숨지기 전 … 늦게까지 남아 대 … 려했었다"고 전했 …

또 다른 교사는 … 데도 B씨가 글을 … 고, 어린이집에 와 … 욕감을 줬다"고 …

김포/김우성기

▲ 2018년 10월 14일 최초 보도 이후 사건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동안 아이 이모 B씨를 만난 언론은 없었다. 언론과 누리꾼들의 비난이 집중된 B씨와의 만남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후 10월 17일 자 사회 면에 B씨 측과 어린이집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후속 기사를 보도했다.

'김포 어린이집교사 사망' 미확인 루머 확산

맘카페지기 등 '마녀사냥' 내몰려

'억울함 풀어달라' 청원 9만명 넘어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김포시 통진읍소재 어린이집 여교사 A(38)씨의 죽음을 놓고 아이 이모와 어린이집 간 원인공방(10월 17일자 7면 보도)이 벌어진 가운데 사건 전개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또 다른 관련 인물들이 무분별한 비난 여론에 내몰리고 있다. SNS 상의 '마녀사냥'이 일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 어린이집, 김포지역 맘카페지기 김모씨 등에 따르면 아이 이모 B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55분께 교사 성토 글을 맘카페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어린이집의 실명과 아이의 나이, 교사의 직위(담임) 등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카페지기 김 씨는 12일 아침 한 스태프로부터 상황을 듣고 바로 운영진회의를 열어 오전 9시20분께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어린이집 실명이 공개된 점, 게시자가 아이 엄마가 아닌 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B씨에게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11일에는 제3의 회원이 카페 일부 회원에게 쪽지로 아이와 교사의 실명을 알렸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B씨가 교사의 실명과 사진을 유포했다거나 맘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신상을 노출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캡처본 등 자료를 확인했다는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김씨는 "맘카페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맘카페가 표적이 되면서 개인블로그의 아들 사진에 악플이 달리고 가정사까지 거론되며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한편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9만4천명을 넘어섰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언론 유통을 지배하는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 이 사건이 오르자 당시 어뷰징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기자로는 유일하게 아이 이모 B씨, 김포지역 맘카페 운영자를 차례로 만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 10월 18일 자 사회 면에 후속 보도했다.

평온하던 일요일 아침에 걸려온 전화 한 통

보통 평일에만 신문을 발행하는 지방 일간지 기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이 쉬는 날이다. 그러나 취재원들이 멀쩡하게 활동하는 금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아까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간다. 이 때문에 막상 근무 날인 일요일에는 '어떻게든 요령껏 쉬겠노라'는 보상심리가 발동한다.

2018년 10월 14일도 여느 일요일처럼 가볍게 아침을 맞았다. 김포지역을 담당하는 나에게 그날의 유일한 일감은 '겨울철 진객 재두루미가 올해 처음 한강하구에 도래했다'는 간단한 사진기사뿐이었다. 이마저도 진작 송고해놓았기에 소파에 누워 눈만 끔벅끔벅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일요일 이른 아침, 일반적인 연락은 아니었다.

"새벽에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뛰어내렸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것 같던데?"

김포에 와서 친분을 맺은 지인의 전화였다. '어린이집 교사,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 헤드라인이 머리에 맴돌면서 소방서로 전화를 돌렸다.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오전 2시 50분께 발생한 일이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숨진 교사 A씨의 자택, 서른여덟이라는 그리 적지 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이 석연치 않았다.

일요일이라 경찰서에 가봤자 헛수고일 게 뻔했다. 친분이 있는 김포경찰서 관계자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다. 익히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통화해야 했다. "통진읍 아파트 어린이집 교사 변사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유서 같은 건 없었어요?"

유족을 상대로 조사해봐야 한다는 등의 통상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았더니 관계자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교사 A씨가 어린이집 나들이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최근 인터넷카페에서 비난 여론에 시달린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 직감했고, 내용을 더 끌어내야 했다. 통신사 등에서 먼저 보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며 이번에는 김포시청 어린이집 담당 부서 관계자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어린이집 감독 권한이 있는 시청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시청 관계자는 A씨의 장례식장에도 다녀왔다며 휴대전화 너머로 흐느꼈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줬다. 나들이에 갔다가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지고, 곧바로 인천과 김포 지역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매도되는 동시에 해당 아동의 친척은 어린이집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했다는 것이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과정이 이해되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했다. 일요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추가취재에 발목을 잡았다.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취재하기로 계획하고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아동학대 오해받던 김포지역 어린이집 교사 숨진 채 발견'. 어린이집 교사 A(38)씨가 자택인 아파트단지 현관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해서 아동학대를 의심받고 인터넷 여론에 시달렸는지 쓰고, 아이 이모 B씨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항의했다는 것까지 팩트 중심으로 보도했다.

사건 당사자마다 경인일보 원망하며 피해 호소

만 하루가 지나도록 타 언론에서 따라 보도하지 않았으나 지역사회, 나아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중복클릭을 제외한 순수 페이지뷰만 25만을 넘기며 경인일보 역사상 최고기록을 세우고 지방언론 자체 홈페이지로는 이례적으로 80여 개나 로그인 댓글이 달렸다. 어린이집 종사자로 보이는 누군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사연을 올리면서 기사를 링크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여론몰이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A씨의 죽음은 종사자들을 분노케 했다. 마침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일대 전쟁을 치르며 국민 여론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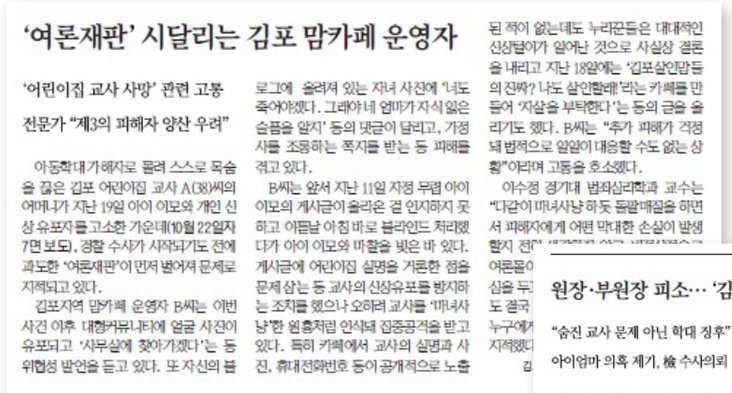
A씨의 죽음 이면에는 아동학대와 맘카페, 극성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처우 등 한국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가 혼재돼 있었다. 그만큼 자극적이었고, 보도 가치가 높았음에도 섣불리 후속 보도를 할 수는 없었다. 첫 보도 이튿날인 10월 15일, 시청과 경찰서에 추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니는 와중에 아이 이모 B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B씨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왜 우리 얘기는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우리를 세상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통곡하며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당신이 봤느냐"고 되물었다.

믿을 만한 경로로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해도, B씨의 호소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만약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B씨를 아예 '악인'으로 분류해놓고 보도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우선 교사 사망현장과 어린이집 현장 취재가 급했기에 첫 보도 이틀 뒤인 16일에 B씨와 그의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경인일보의 첫 보도 이후 3일째부터 파문이 확산됐다. 이틀째인 15일 오후 4시께 국민일보에서 사건을 보도하며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 16일 오전부터는

통신사와 방송사 등 국내 주요 언론 상당수가 '경인일보'를 인용 보도하며 종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의가 쇄도했다.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 이날 오전, 아이 이모 B씨 부부를 김포시 모처 카페에서 만났다. 약속 장소인 카페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근래 드물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내게 엄포를 놓았던 참이었다.

가까이 마주한 B씨 부부는 얼굴이 상해 있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아이를 내 조카라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루 사이에 신상이 털리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 B씨는 "아동학대로 충분히 의심됐고,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숨진 A씨의 반론기회가 없기에 한편으로 야속했으나, B씨의 주장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었다. B씨는 오히려 어린이집 측이 교사를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두 시간 넘게 귀 기울이고는 밖에 나와 한참 담배를 피워 물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B씨 입장을 헤아리자니 머리가 복잡했다.



'여론재판' 시달리는 김포 맘카페 운영자

'어린이집 교사 사망' 관련 고통

전문가 "제3의 피해자 양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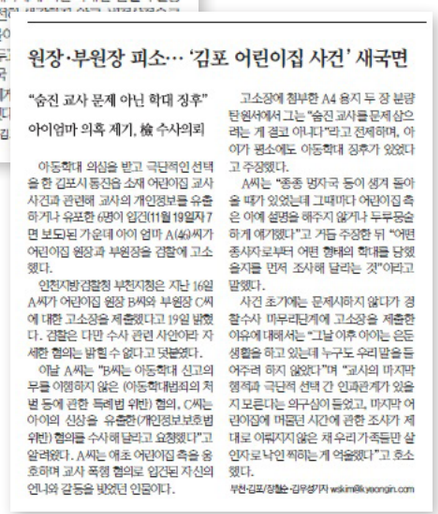
아동학대가 해지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 어린이집 교사 A(38)씨의 어머니가 지난 19일 아이 이모와 개인 신상 유포자를 고소한 가운데(10월 22일자 7면 보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도한 '여론재판'이 먼저 벌어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지역 맘카페 운영자 B씨는 이번 사건 이후 대형커뮤니티에 얼굴 사진이 유포되고 '사무실에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듣고 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자녀 사진에 '너도 죽어야겠다. 그래야 네 엄마가 자식 잃은 슬픔을 알지' 등의 댓글이 달리고, 가정사를 조롱하는 폭지를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B씨는 앞서 지난 11일 저경 무렵 아이 이모의 게시글이 올라온 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 바로 블라인드 처리했다가 아이 이모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게시글에 어린이집 실명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는 등 교사의 신상유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했으나 오히려 교사를 '매너사냥'한 원흉처럼 인식돼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카페에서 교사의 실명과 사진, 휴대전화번호 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는데도 누리꾼들은 대대적인 신상털이가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지난 18일에는 '김포살인팝들의 진짜? 나도 살인할래'라는 카페를 만들어 '지살을 부탁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추가 피해가 걱정돼 법적으로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다같이 매너사냥하듯 동맹매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지 전[illegible] 어른들이 심을 두[illegible] 도 결국 누구에게 지적했다

▼ 사건이 잠잠해지던 시기 아이 엄마의 심경 변화는 사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슈로 소비되고 외면당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11월 20일 자 사회 면에 보도했다.



원장·부원장 피소… '김포 어린이집 사건' 새국면

"숨진 교사 문제 아닌 학대 정후"

아이엄마 의혹 제기, 檢 수사의뢰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동진읍 소재 어린이집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6명이 입건(11월 19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아이 엄마 A(46)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A씨가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수사 관련 사안이라 자세한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B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왔다. A씨는 애초 어린이집 측을 옹호하며 교사 폭행 혐의로 입건된 자신의 엔나의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다.

고소장에 첨부한 A4 용지 두 장 분량 탄원서에서 그는 "숨진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종종 멍자국 등이 생겨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아예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고 거듭 주장한 뒤 "어떤 종사자로부터 어떤 행태의 학대를 당했을지를 먼저 조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에는 문제시하지 않다가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이후 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며 "교사의 마지막 행적과 극단적 선택 간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고,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 가족들만 살인자로 낙인 찍히는 게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부천·김포/정철순·김무성기자 wskim@kyeongin.com

▲ 사건 발생 보름이 경과한 시기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왜곡돼 있었다. 김포지역 맘카페 운영자 또한 사건의 큰 피해자였고, 10월 26일 자 사회면에 맘카페 운영자의 피해상황을 보도했다. 김포지역 맘카페에서 대대적인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이 이뤄졌다는 대다수 언론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훗날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원인은 복합적인데 맘카페로 급격히 쏠린 비난

아이 이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난 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모-어린이집 원인공방'이라는 두 번째 기사를 출고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어린이집 측 주장처럼 맘카페와 이모에게 책임을 돌리던 때였다. 아이 이모를 만난 언론은 내가 유일했고, 종편 뉴스프로그램과 중앙지 등에서 경인일보의 두 번째 기사 내용 중 특히 이모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인용 보도했다.

두 번째 기사가 나간 날, 이번에는 김포지역 맘카페 운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경인일보의 첫 보도 때문에 맘카페와 카페 회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나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통화가 끝나고 얼마 안 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운영자를 만났다. 운영자는 "어떻게 되돌려놓을 것이냐"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운영자의 주장을 참고해 취재해보니 맘카페에서 조직적으로 A씨의 신상을 털고 유포했다는 대다수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특정 회원 한 명이 다른 회원 4~5명에게 쪽지로 아이의

잠시 쉬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숨지기 전날 자정 무렵까지 어린이집에 A씨가 남아 있던 이유를 묻자 "교사들끼리 대책을 논의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김포지역 맘카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A씨의 해고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사태가 커지자 다시 해고번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지기 전날 격려해주며 데리고 있었다던 A씨가 언제 어떻게 퇴근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도 했다.

실명과 교사의 실명을 알려준 게 김포지역 맘카페에서 벌어진 전부였다. 맘카페의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에 교사가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A씨 죽음의 원인은 인천지역 맘카페의 성급한 아동학대 의심, 이모 B씨의 비난 글 게시와 어린이집 항의방문, 어린이집 측의 과잉 대응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포지역 맘카페가 사건 원흉으로 지목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카페 운영자는 신상이 털려서 아픈 가정사가 거론되고 자식까지 욕설을 듣고 있었다. 역시 기자로는 유일하게 카페 운영자를 만난 뒤 10월 18일 자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 미확인 루머 확산' 이라는 기사와 10월 26일 자로 '여론재판 시달리는 김포 맘카페 운영자' 라는 기사를 차례로 출고했다. 기자를 향한 비난 댓글을 감수해야 했다.

숨진 A씨 엄마가 딸의 신상을 유포한 이들과 아이 이모를 고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던 11월 초에 아이의 또 다른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 엄마 C씨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어린이집 측을 옹호하던 엄마였던 터라 즉시 만사 제치고 자택으로 달려갔다.

C씨는 사건 당시 어린이집 측이 전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아이가 사건 이후 방치됐다면서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당사자 중 한 명이면서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던 C씨는 사건 한 달여가 흐른 11월 1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고소했다. C씨는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아이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내게 알려왔다. 이에 11월 20일 자로 '원장·부원장 피소…김포 어린이집 사건 새 국면' 이라는 보도를 했다.

첫 보도부터 4개월...미완의 기억으로 남았지만

아이 엄마가 고소한 사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숨진 교사의 엄마가 고소한 사안은 올해 2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법인과 어린이집 실제 운영자, 인천 및 김포 지역 맘카페 회원 2명이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 유포는 오히려 어린이집 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에서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교사에게 물을 뿌린 아이 이모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와 다르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지배당한 어뷰징 보도의 물결은 이미 김포지역 맘카페를 범인으로 규정했고 이후에도 번복되지 않았다. 일부 기자는 카페 운영자를 찾아와 직접 사과하고, 적지 않은 언론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했음에도 한 번 휩쓸고 떠난 여론은 진실이 됐다.

김포 보육교사 사망 사건은 기자로서 명쾌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미완의 기억으로 남게 됐다. 다만 기자인생을 좀 더 살아가려는 내게 깊은 교훈을 안겼다. 대중의 관심이 지름길이 아니고 다수의 목소리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작품을 완성하지는 못할지언정,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는 결국 기록으로 남아 언젠가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해진 시간이었다.